

LA시, 식당·영화관 등 입장 때 백신 접종증명서 제시 의무화

LA시가 식당과 영화관 등 실내 시설에 들어가려 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LA 시의회는 6일 식당·영화관·체육관·박물관·미용실 등 각종 실내 점포·영업점에 입장하려면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미국에서 시행되는 백신 규제 가운데 가장 엄격한 축에 드는 것이다.

다만 질환 때문에 백신을 맞을 수 없거나, 백신에 반대하는 종교 교리에 대한 신념이 두터운 사람은 이런 장소에 가기 72시간 전에 받은 음성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오는 11월달 4일부터 시행된다. LA시 측은 남은 기간 동안 이 규제를 시행하고 단속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시의원은 이 의무화 조치가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이유로 조례안 제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9월 뉴욕의 한 극장에서 담당 직원이 관객의 백신 접종증명서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Reuters.com

뉴욕시는 지난 8월 가장 먼저 실내 식당·체육관·오락시설 등에서 직원과 손님의 백신 접종 증명 제시를 시행했고 이어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도시·카운티도 여기에 합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점점 더 많은 술집·식당이 자율적으로 고객의 백신 접종 상태를 파악한 뒤 가게에 입장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식당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캘리포니아주가 음식점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규제를 강화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5일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거나 테이크아웃, 배달업체를 통해 주문을 할 때 케첩, 간장 등 일회용으로 포장된 식품 조미료 등을 소비자가 주문하지 않으면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AB1276)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그간 요식업체가 일회용 숟가락이나 젓가락, 각종 소스 등을 고객의 주문이 없어도 제공해 오던 관습에 제동을 걸고 있어 법안의 내용이 정착 될 때까지는 업체는 물론 소비자들의 불편이 따른 전망이다.

이 법의 위반에 대한 단속은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 된다. 하지만 유예 기간 이후 적발된 업체는 1, 2차 적 발까지는 통보, 3차 적발부터는 하루 25달러씩, 연간

최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시니어 거주 요 양시설이나 병원 등의 의료기관, 학교 카페테리아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캘리포니아주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가장 많이 수거되는 쓰레기는 일회용 컵, 접시, 수저, 빨대 등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쓰레기이다.

지난 6월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스페인, 호주 등 각국 학자로 구성된 국제 공동 연구팀이 3cm 이상 크기의 해양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음식 포장·배달용 범주에 속한 1회용 비닐봉지(14%), 플라스틱으로 된 물병(11.9%)과 그릇(9.4%), 식품 비닐 포장지(9%) 등의 비중(44.3%)이 절반에 육박했다.

아울러 플라스틱 뚜껑 등 다른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했을 때 플라스틱 제품 10가지가 해양 쓰레기의 4분의 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한국문화원, 2022 LA Art Project 전시 공모

LA한국문화원 (원장 박위진)은 2022년 LA한국 문화원 2층 갤러리에서 그룹전시를 희망하는 미술 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LA한국문화원 측은 "이번 전시 공모는 역량 있는 한국 및 미주한인 작가들을 발굴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작품들을 소개하여 문화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면서 "신청 작품은 장르에 크게 구애 받지 않지만, 설치 전시물 등은 문화원 전시실 규격 등 내부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LA한국문화원 측은 또 "그룹 형태로 참여를 신청할 경우 그룹전시의 주제 등 간단한 큐레이팅 작업이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미술작품은 2022년 그룹전 형태로 한국문화원 2층 갤러리에서 전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응모 자격은 전업작가(학생 제외)이며 시청 기간은 오는 11월 15일 23시까지(미 서부시간 기준)이다. 신청은 LA한국문화원 홈페이지(www.kccla.org)에서 해야 한다.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 중에 발표하며 선발 작가 또는 미술단체에게는 개별 통지된다.

박위진 원장은 "LA한국문화원은 창의적인 역량을 갖춘 한국 및 미주한인 미술가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며 활발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LA한국문화원 전시 공모에 많은 미술가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kccla.org/events/ko/view/?eid=6148&cm=10&cy=20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323) 936-3014

| | | |
|--|---------------------------------------|---------------------------------------|
| Implant \$1,700 \$1,200 | FREE Consultation | Exam X-ray Cleaning \$35 |
| Crown \$500 | 잇몸치료 \$600 \$400 | 틀니 \$1,500 |

Dr. Seong Hoon Cho
DDS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KMC Dental Group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 | | |
|---|---|---|
| Irvine Tel. (949) 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 L.A. Tel. (323) 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 Hacienda Heights Tel. (626) 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 |
|---|---|---|